

코스피지수	2101.04	▲	+9.34
코스닥지수	641.85	▼	-3.16
환율 (원·달러)	1195.70	▼	-1.80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뉴욕서 자율주행 분야 로드맵 공개

## “2024년부터 자율주행 차량 본격 양산”

애플티브사와 자율주행 S/W 개발 뉴욕서 조인트벤처 본 계약 체결 “안전·효율성 중시하는 철학 주목” 최적의 플랫폼 수소차 개발도 계속

미래 성장동력인 자율주행 분야에 2조4000억 원대 대형 투자를 결정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2024년부터 자율주행기술이 적용된 차량을 양산하겠다”고 선언했다.

현대차그룹과 애플티브사는 2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골드만삭스 본사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캐빈 클락 애플티브 CEO 등 양사의 주요 경영진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계약 체결에 앞서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이 지분투자가 아닌 직접투자, 즉 조인트벤처 설립을 한 배경에 대해 “그렇게 해야 다른 자동차회사에 공급이 가능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애플티브사를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안전이



현대차그룹과 애플티브사는 2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골드만삭스 본사에서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왼쪽)과 애플티브 CEO 등 양사 주요 경영진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주행 S/W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 현대차

가장 중요한데 애플티브사는 기술은 물론 안전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좋은 기술이라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자동차 회사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자율주행기술 선도 업체인 구글과 애플티브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구글은 자율주행이 구글 생태계의 일

부이자 그들 사업의 일부이지만 애플티브는 자율주행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그 부분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이어 자율주행 차량 양산에 대해 “2022년 말쯤 완성차에 장착해 시범운행을 시작하고, 2024년에는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앞으로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또한 양산형

자율주행 차에 대해서는 “성능뿐만 아니라 원가 측면에서도 만족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며 “우리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뛰어나면 다른 완성차 메이커들이 이 조인트벤처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조인트벤처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이날 정 수석부회장은 현대차그룹이 자율주행 기술 못지않게 역점을 두고 있는 수소차 개발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소전기차는 자율주행차의 좋은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율주행차가 레벨 4, 5 수준으로 가면 전력 소모가 커서 지금 같은 배터리 전기차로는 한계가 있다. 장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수소전기차가 자율주행차에 적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자율주행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기는 2030년쯤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어떤 환경에서 운영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고속도로에서는 빨리 갈 것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자율주행이라면 보수적으로 봐서 2030년은 돼야 할 것이다”며 “아마 지역별로도 다를 것이다. 인도와 같은 시장은 조금 느릴 것이고, 팔로알토(실리콘밸리)와 같은 곳은 빠를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간쯤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애플티브는 어떤 회사?...순수 자율주행 기술 ‘글로벌 3위’

스타트업 인수 통해 개발 역량 UP

애플티브(APTIV)는 2017년 12월 미국의 자동차부품 업체 델파이에서 분사한 차량용 전자부품 및 자율주행 전문 회사다.

2018년 기준 매출 15조9000억 원, 영업이익 1조6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현

재 시가총액 27조4000억 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차량용 전기, 전자장비를 비롯해 ADAS,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시스템, 커넥티드 서비스 등 전자 및 안전 관련 등 전자부품이 주력 사업으로 전체 인력은 14만3000여 명에 달한다.

최근 애플티브는 자율주행 사업을 핵심 사업 분야로 정하고 개발 역량을 강화

하고 있다. 2015년과 2017년 자율주행 유망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오토마티카와 누토노미 인수를 통해 자율주행 개발 역량을 단번에 끌어 올렸다. 애플티브의 순수 자율주행 분야 기술력은 구글의 웨이모, GM의 크루즈에 이어 글로벌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원성열 기자

내비건트 리서치 순수 자율주행(Level 4, 5) 기술 순위

1 웨이모	6 다임러-보쉬
2 GM	7 르노-닛산
3 애플티브	8 폭스바겐
4 포드	9 Zoox
5 인텔-모빌아이	10 BMW-인텔-FCA



제주항공 자체양성 조종사 1기 수료 ‘선선발 후교육 과정’ 통해 12명 배출

제주항공(대표이사 이석주)의 1기 자체양성 파일럿(사진)이 배출됐다.

제주항공은 ‘조종인력 선선발 후교육 과정’(JPP:JEUair Pilot Program)을 이수한 12명의 1기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공항공사의 제트 전환과정 이수를 거쳐 2020년 3월까지 제주항공이 채용한다.

‘조종인력 선선발 후교육 과정’은 2017년 국토교통부의 조종사 수급정책 추진방향에 맞춰 항공사가 훈련생을 선발하고, 이들을 훈련기관에 위탁해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하면 채용하는 방식이다. 항공사는 훈련비용을 일부 부담하거나 대출 보증 등의 지원을 통해 훈련생 개인의 부담을 줄여 준다.

제주항공은 이 제도를 통해 2017년 한국항공대학교에 위탁했던 12명의 조종사 후보생에 대한 수료식을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제주항공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제주항공측은 첫 수료생 배출에 대해 “이 제도를 통해 자체적으로 원활하게 조종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 하이원리조트, 홍콩 골프 단체 관광객 유치

하이원 리조트(대표 문태관)가 리조트 업계 최초로 홍콩 골프 단체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다. 하이원 리조트는 22일부터 25일까지 홍콩 골프 단체 관광객 32명이 하이원CC를 비롯해 리조트를 방문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하이원 리조트는 내년부터 정규 패키지를 구성해 매월 2회 정기적으로 홍콩 골프 단체 관광객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방안에서는 골프 라운딩 2회를 비롯해 숙박, 연회 코스 요리, 조식 등을 이용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 무신사 스탠다드, 캐시미어 컬렉션 출시



온라인 패션몰 무신사의 자체 브랜드(PB) 무신사 스탠다드가 니트, 코트, 머플러 등으로 구성된 캐시미어 컬렉션을 선보였다. 다양한 색상으로 포인트를 더했으며 내몽고산 프리미엄 원사로 착용감과 보온성을 높였다. 코트는 싱글, 더블, 싱글 체스터, 더블 체스터 등으로 니트는 크루넥, 모크넥, 터틀넥, 가디건 등으로 구성했다. 출시 기념으로 26일까지 니트 20%, 코트 10%, 머플러 5% 할인 판매한다.

## 인터파크, 아동가구 컴프로 특가 진행

인터파크가 29일까지 아동가구 브랜드 컴프로 입점 기념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컴프로로 단독 기획상품을 최대 62% 할인한다. 5% 추가 할인 쿠폰도 사용할 수 있다. 주요 제품은 퍼펙트 1200 기둥기 높낮이 조절 책상, 오투 1060 높낮이 조절 책상, 키즈마스터 Y318 기능성 학생 의자, 멜로디 슈퍼싱글 침대 등이다. 구매 고객에게 경기도 파주 헤이리 마을에 위치한 역사 체험관 한국 스토리 뮤지엄 초대권을 증정한다.

정정욱 기자

※ 교육·퍼즐은 15면에 옮겨 실었습니다

## 약재 잇따르는 바이오업계, 이번엔 ‘헬릭스미스 쇼크’

엔젠시스 미국 임상3상 결과 연기 약물 혼용 피험자 발견...“송구하다”

헬릭스미스(바이로메드)의 당뇨병성 신경병증 유전자치료제 엔젠시스(VM202)의 미국 임상3상 결과 발표가 연기됐다. 일부 임상환자에서 위약(가짜약)과 진약(신약 후보물질)의 약물혼용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헬릭스미스는 임상3상을 다시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바이오·제약업계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신라젠의 팩사백 간암 임상 중단에 이어 ‘헬릭스미스 쇼크’라며 업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헬릭스미스는 23일 “DPN 임상3상 일부 환자에서 위약과 약물 혼용 가능성이 발견됐다”며 “현재 데이터로는 혼용 피험자의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해 별도 조사해 11월 최종보고서와 12월 임상3상 종료 미팅에

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보고할 예정이다”라고 공시했다.

김선영 헬릭스미스 대표도 24일 설명회를 열고 “약물 혼용이라는 어이없는 사태 발생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불상사가 발생해 송구하다. 특히 문제가 된 피험자를 제외할 때에는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욱 애통하다”고 밝혔다.

헬릭스미스는 현재 혼용 원인을 파악 중이며, 임상 의료기관 등에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소송도 준비 중이다. 또한 이번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후속으로 2~3개의 중간 규모 3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두번째 임상 3상은 2021년 말에서 2022년 1분기에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FDA 신약허가신청도 2021년으로 연기할 예정이다.

한편 헬릭스미스는 24일 주가가 하한가로 떨어져 12만 원에 장을 마쳤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 경제현장.jpg



현대백화점이 29일까지 목동점 7층 토타스홀에서 어린이 체험전 ‘컬러풀 사파리’를 진행한다. 코끼리 미끄럼틀, 정글짐 등 체험형 놀이 시설을 마련했다. 동물 프린팅 에코백 만들기, 동물 얼굴 가면 만들기 등 이벤트도 연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현대백화점